

익산시 '홀로그램 기술개발' 전진기지 낙점

전북도와 공동 추진 사업 과기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최종 선정 총 4000억 투입 3D 공간정보 획득 등 7대 핵심기술 개발 등 연구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술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전북도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중속 탈피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3無(안경착용·시각피로·공간

간왜곡)를 지향해 기존 실감 콘텐츠(3D·VR·AR)와 차별화돼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총 40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과 5대 사업화 실증을 연구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전담해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하고 산·학·연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홀로그램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7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콘텐츠 획득

기술(3D 공간정보 획득), 생성·처리 기술, 재현 기술(무안경 3D 입체), 인터랙션 기술(객체·공간 인식), 프린팅 기술(볼륨형 홀로그램), 윈도우 광재현 기술(전면 유리 윈저리 HUD), 구현 기술(실시간 홀로그램)이다. 또 5대 실증화 사업은 7대 핵심 기술 연구 결과의 실용화·상용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스마트 케어(홀로그램 진단·분석), 팩토리(홀로그램 디자인·설계·불량검출), 헤리티지(문화재 복원·전시), 상용차(홀로그램 인포테인먼트), 스마트 팜(홀로그램 에너지 관리)이 추진된다. 시와 전북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포럼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KT, SKT 등의 대기업이 기획에 참여해 민간 분야와의 성과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사업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며 "미륵사지 문화유산 복원, 자동차산업 및 농업분야 스마트사업과 융합된 신사업 확장으로 익산시의 문화·경제적 부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26일 개통하는 정읍-순창-쌍치 국도 21호선 백석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정읍·순창 잇는 국도 21호선 부전~쌍치 도로 개통

정읍시과 순창군을 연결하는 국도 21호선 부전-쌍치 도로가 26일부터 개통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순창군 쌍치면 가운리에서 정읍시 부전동에 이르는 국도 21호선 부전-쌍치 구간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1년 1월 착공했으며 8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구간에는 개운터널(2205m)과 교량 5개, 교차로 4개 등이 설치됐다. 특히 개운터널에는 폐쇄회로(CC)TV와 자동화재탐지시설, 피난대피소 등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됐다. 도로 개통으로 기존 구간이 3.1km 줄고 운행시간은 22분에서 7분으로 15분 가량 단축된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신설도로 개통으로 정읍과 순창을 오고가는 길이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두 지역은 물론 전북지역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운곡습지마을, 생태밥상 시연...관광객 사로잡는다



운곡습지 주변 호암마을(고창읍) 방문자센터에서 '운곡습지마을 생태밥상 시연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청국장 등 향토음식 활용 지역경제·생태관광 활성화

고창군의 운곡습지 인근마을이 향토음식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운곡습지 주변 용계·부귀마을은 호암마을(고창읍) 방문자센터에서 '운곡습지마을 생태밥상 시연

회'를 개최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시연회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생태밥상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 주관으로 마을 주민과 관광 관련업 종사자, 공무원 등을 초대했다. 시연회에서 용계마을은 청국장과 동충하초 백숙, 부귀마을은 가지불고기과 붕어찜을 선보였다.

시연된 생태밥상은 운곡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메뉴로 활용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생태밥상 운영 주체인 마을 주민이 개발한 다양한 메뉴를 통해 생태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며 "시연회에 참석한 관광 관련업 종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태관광 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전주비빔밥·한정식 전문 30개 업체 협의체 구성 '전주음식' 품격 지키기로

전주의 비빔밥과 한정식 전문업체들이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인 전주 음식의 품격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과 한정식을 취급하는 30개 전문 업소가 주축이 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맛의 도시' 전주를 찾지만 일부에서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것은 물론 친절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회장에 김관수(전라도 음식 이야기), 부회장에 김정숙(갑기원)·노은성(양반가), 총무로 노희범(한국관) 씨를 각각 선출했다. 김관수 회장은 "전주의 음식발전을 위해 협의체가 중심이 돼 친절 등 관광객 접대 방안을 개선하겠다"면서 "관광객들이 가격과 맛, 서비스에 만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지역 노사·주민대표 참여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고용산업 위기 극복·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문

군산시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기업인협회 대표, 군산시의회, 법률·노무 전문가 등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노

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고용·노동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기구다. 협의회 위원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모델,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공동선언문은 지역 위기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선진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과장은 "그

간 협의체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참여함으로써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사회대통합기구로서의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부활(甦活)을 위해 각계각층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주)코빅스 노암산업단지 투자협약식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 '코빅스' 남원 노암산단 이전

2021년까지 300억 투자 150여명 신규 고용 전망.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코빅스가 남원시 노암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코빅스는 전북도, 남원시와 체결한 투자협약(사진)에서 2021년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노암산업단지 3만450㎡ 부지에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헤어 관련 상품 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남원시가 화장품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우수화장품제

100년 신문 향한 정통성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